

서학동에 예술복합문화센터 조성한다

전주시, 내년 6월까지 19억4000만원 투입 예술전문도서관·생활문화센터 조성

전주 서학동예술마을에 예술전문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선다. 전주시는 내년 6월까지 총사업비 19억4000만원 투입해 서학동예술마을 내 892.6㎡ 부지에 예술전문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가 포함된 예술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전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신청·선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우선 올 연말까지 예술전문도서관을 만든 뒤 내년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예술전문도서관은 전주고대부설초등학교 인근 지상2층 규모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들 계획이다.

이곳에는 미술, 음악, 연극·무용, 사진 등 4개 분야별 예술코너 자료실과 개방형 열람실, 작품 전시공간이 갖춰진다. 시는 또 부지의 강점인 정원을 활용해 소공연장과 연못을 만들고 오픈형 담장으로 조성하는 한편 체험과 소통, 독서와 원이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민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상3층 규모로 신축되는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주민 커뮤니티 공간, 전시·공연 등 창작 공간, 학습공간, 다목적홀, 오픈카페 등으로 구성된다. 생

활문화센터는 지역 예술인들의 창조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깊이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예술전문도서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내 개관을 목표로 삼아 오는 9월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생활문화센터 실시설계 용역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창조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공간과 책이 융합된 공유플랫폼으로서 정체성을 갖춘 예술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예술가·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또 의정부, 서울 은평구,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선진지 벤치마킹에도 나섰으며, 건축·조경 전문가, 지역 예술가 등과 건축기획 및 공간구성, 콘텐츠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예술복합문화센터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예술교육도시 전주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는 발판 역할을 할 것"이라며 "팔복예술공장과 한옥마을내 전통놀이 전용공간 '우리놀이터 마루달'을 연계해 예술과 대중의 교류 공간의 장인 '예술놀이교육 거점공간'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아름다운 정원' 3곳 선정

공모전 시상식 열고 대동상·풍류상·울금음상 시상

전주시가 시민들이 손수 가꾼 정원 3곳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뽑았다.

시는 '2021년 아름다운 정원'을 공모한 결과 안소연 씨의 '역사와 공존하는 아름다운 정원(교동)' 등 3개 정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열린 이번 공모전은 조성된 지 2년이 넘은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신청을 받아 식물다양성, 창의력,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현장심사와 시민투표를 거쳐 선정했다.

그 결과 ▲대동상에 역사와 공존하는 아름다운 정원(학인당, 안소연) ▲풍류상에 화평, 안전 그리고 조용한 가든(조은정 갤러리, 조성자) ▲울금음상에 유포리아(개인 정원, 유영수) 등 총 3개 정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동상을 수상한 안소연 씨 정원의 경우 역사적 미학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충분히 갖춘 정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와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상임대표 정명운)는 이날 전주 시청에서 '2021년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아름다운 정원을 인증하는 명패가 주어졌으며,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활동지원금도 지급됐다.

향후 시는 공모전에서 수상한 정원을 활용한 투어 프로그램을 여는 등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을 통해 용복동 '꿈꾸는 마당'과 효자동 '엄마의 정원' 등 9개 정원을 발굴한 바 있다.

심사에 참여한 권진욱 교수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을 기반으로 한 정원의 유형과 자연주의적 정원의 유형, 미니멀한 소공간의 정원을 만나볼 수 있는 공모전이 됐다"고 평했다. /김윤상 기자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자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주시공립작은도서관운영협의회(회장 박미경)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자 25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영화문화발전위원회의 2021년 주민 시네마스쿨 '우리 동네 콘텐츠 우리가 만든다'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 이번 교육은 영상 콘텐츠 제작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됐다.

이번 교육 참여자들은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촬영, 편집하는 방법부터 완성된 영상 콘텐츠를 배포·활용하는 방법까지 영상 제작과정 전반을 배웠다.

전주시공립작은도서관운영협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운영자들이 작은도서관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북튜브를 통한 도서를 추천하는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미경 회장은 "이번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야호다함께돌봄센터' 2배 확충

11월부터 7곳서 추가 운영

전주시가 초등학생을 둔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방과 후 돌봄공간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1월부터 완산구 3곳과 덕진구 4곳 등 총 7곳에서 '야호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야호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만 6~12세)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과 후 돌봄 공간이다.

이를 위해 시는 21일 ▲중화산2동 ▲효자1동 ▲효자5동 ▲인후3동 ▲덕진동 ▲금암2동 ▲송천1동 등 7곳의 유휴공간 무상제공자와 10년간 야호다함께돌봄센터로 무상사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돌봄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후속절차를 밟기로 했다.

기존 야호다함께돌봄센터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위주로 운영돼왔던 만큼 시는 다양한 시설로 확장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돌봄수요



전주시는 21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7곳의 유휴공간 무상제공자와 10년간 야호다함께돌봄센터로 무상사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가 가장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설치할 추진하고 있다.

올 11월 야호다함께돌봄센터 7곳이 문을 열면 전주시 돌봄센터는 총 14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이어 올해 2개소를 추가 개소한 뒤 내년에도 7개소를 늘려 등 총 23개소까지 돌봄센터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야호다함께돌봄센터 외에도 시는 지역공동체 연계 돌봄사업, 방학 중 돌

봄사업을 함께 병행 추진해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조현숙 전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야호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확충해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도시,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전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다양한 국적 연세대 한국어학당 학생들 대상 랜선투어 가자

전주시는 21일, 미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 한문화관에서 실시간 랜선투어를 진행했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각각의 나라에서 비대면으로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외국 학생들에게 전주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

공하고자 이번 비대면 랜선투어를 준비했다.

이날 한국 방문 경험이 없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전주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영상을 통해 한복, 한옥을 체험하

고 한옥마을과 확산숲속시립도서관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또 청사초롱 만들기, 부채춤 배우기, 전주비빔밥 등 전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를 체험했으며, 판소리 강사와 함께 진도아리랑을 배우고 따라하기도 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제초 작업·환경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

전주시가 장마 기간에 자라난 공원·녹지 내 잡풀 정비에 나선다. 시는 다음 달까지 공원, 녹지, 가로수 주변 등 129만2000㎡를 대상으로 제초 작업 및 환경정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비구간은 ▲거마공원 등 근린공원 42개소 ▲어린이공원 103개소 ▲백제대로 등 가로수 137노선 ▲강변로 완충녹지 등 시설녹지 299개소 등이다.

시는 이곳들을 20개 권역으로 나눠 동시에 정비를 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과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간은 기간제 근로자와 희망일자리사업 인력들을

추가로 배치해 수시로 정비기로 했다. 지난 5월에도 한차례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한 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제초·예초 작업을 실시해 단정한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최병직 전주시 정원도시지원본부 부장은 "공원·녹지부서의 일원화로 녹지시설물에 대한 조직적·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적기에 작업을 시행해 단정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수목의 원활한 생육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